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포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 (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

교회설립 5주년 기념행사

필그림예술단
뮤지컬 공연

★★★★★

21일(토) 서초구민회관에서

우리교회 필그림예술단이 펼치는 성탄축하성극 "침묵의 노래"가 이번 주 토요일인 21일 오후 7시 서초구민회관에서 막을 올린다.

"침묵의 노래"는 천지창조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고난, 부활 등을 다룬 뮤지컬.

이날 공연에 앞서 로비에서는 6시부터 교회에서 마련한 다과를 들며 친교의 시간을 가진다. 준비위원회에서는 시간관계상 식사는 가정에서 미리

6시에 입장, 공연전 다과
이웃돕기 모금함도 설치
초대권 전도용으로 활용

간단히 드시고 오실 것을 권하고 있다.

초대권은 무료로 교회 사무국에서 배포한다. 교회에선 가능하면 우리 교인뿐 아니라 이웃이나 친지 더욱이 믿지 않는 이들도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회는 공연장 입구에 연말을 맞아 외롭고 쓸쓸한 이웃들을 위한 모금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모금에 호응한 성도들에게는 가슴에 예쁜 빨간 리본을 달아드려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타낼 계획이다.

특히 이 공연은 교회설립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

1997년 교회학교 교사 오늘 임명

12개 교회학교 283명 봉사

1997년도 교육위원회 조직

· 교육위원회 지도: 박귀환 목사 · 교육위원장: 홍정호 장로

교회학교	지도	부장	부감
탁아부	이영희 집사	성준경 장로	서춘식 집사, 이남복 권사
유치부	최양순 전도사	김영준 장로	이관규 집사, 이성애 집사
유년부	이상진 목사	이영기 장로	허찬우 집사, 현경옥 집사
초등부	이성득 목사	최종시 장로	신용식 집사, 최일춘 집사
중등부	박귀환 목사	홍정호 장로	박두호 집사, 신동기 집사
고등부	김명현 목사	박철훈 장로	안의경 집사, 김정희 집사
대학부	원호목사	정병무 장로	김세제 집사, 장윤영 집사
청년부	이만열 전도사	노문환 장로	이병생 집사, 주경자 집사
장년부	임진태 목사	김광신 장로	하영수 집사, 장동임 집사
소망부	우심화 목사	이남호 장로	박두영 집사, 김선미 권사
사랑부	김성숙 전도사	김태기 장로	김일용 집사, 유복달 권사
새가족부	이순환 목사	오정수 장로	임상현 집사, 원복순 집사

■ 교육이념(천국시민 생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천국시민으로 성장케 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 교육목적(천국시민 양성)

① 거듭난 인간 ② 성숙한 신자 ③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 교육목표

교회학교 교육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함을 고백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 교회, 인간, 가정, 이웃, 역사와 우주, 사회와 국가, 직업, 재물 등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돌리기 위한 것이다.

“찬양 가득한 성탄절”

■ 성탄축하찬양예배

22일(주일) 오후 5시

가브리엘 찬양대는 22일 주일 찬양예배시간에 우리 귀에 익숙한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중심으로 성탄축하찬양을 한다.

■ 재롱잔치

24일(화) 오후 7시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성탄절 이브인 24일 밤 7시 1층 예배실에서 그동안 연습해 온 찬양과 율동, 성서낭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민다.

스데반회 간사 하영수 집사



스데반회는 14일(토) 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간사장에 하영수 집사, 총무엔 임훈규 집사가 각각 임명됐으며 스데반회의 사업보고 및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을 하였다.

스데반회는 우리 교회 안수집사들의 모임으로 주일에 찬양예배 후 교회청소를 하는 등 곳곳에 솔선하여 봉사의 본을 보이고 있다.

김성숙 전도사 부임



김성숙 전도사가 사랑부 지도교역자로 청빙되었다. 김전도사는

1969년생으로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심리치료학과와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였다. 또한 김 전도사는 장위동교회에서 유치부를 지도한 경력을 갖고 있다.

가족으로는 오철훈 전도사(영광교회)와의 사이에 17개 월된 아들을 두고 있다.

창세기 강해



“도합 70명이었더라”

(창세기 46장 8 - 27절)

이종운 목사

창세기 46장에는 애굽에 함께 온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손의 이름이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은 이미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8대 후손들이, 5장에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경건한 후에 10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예들이 나와 있고 11장에는 아브라함의 출생까지 셈의 후예들, 36장에는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예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의 300명에 달하는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이름과 삶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십니다.

1. 70인 혹은 75인?

창세기 46장에는 실제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과 민수기 26장 그리고 역대상 2 - 8장에 나타난 이름들을 비교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름의 철자가 다르거나 혹은 빠지거나 더해진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와 구약성경의 이름이 차이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같은 나열인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46장에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간 그의 후손들이 도합 70인이라 했습니다. 8 - 25절에 그 이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이미 죽은 엘과 오난의 이름이 포함되었고(12절)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20절)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66명이 됩니다. 거기에 야곱의 아내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쳐 70인이 됩니다(창46:27). 그러나 스테반은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요셉이 75인의 가족들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수가 다른 것에 대해 몇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비평주의 학자들은 스테반이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의 수 개념상 정확한 수를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70인역에 의하면 출애굽기 1장 5절에 나타난 야곱의 후예는 75인으로 되어 있습

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70인이라고 나와있습니다).

2. 찾을 수 있는 교훈

창세기 46장은 난해합니다. 사실 그 많은 이름 중 후일 야곱의 후손으로 알려진 사람은 몇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창12:2, 15:5).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창대케 하리라 하였고 그의 자손들이 원수의 성을 점령할 것이며 그 자손을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창22:17 - 18).

야곱이 70명의 자손을 데리고 애굽에 이주한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라라고 약속하신 지 21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후 430년만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른만 60만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20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급변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쉽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15년 동안 한 명이 70명(혹은 75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15년의 두배인 430년 동안에는 200만이 되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증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천천히 하셨습니다. 기초를 조심스럽게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조심스럽게 출발해야 합니다. 기초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성경의 원리를 자세히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자신을 투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 두 제자에게 자기 전부를 거셨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하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애굽에 함께 내려간 야곱 가족의 화합과 일치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다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도착하여 그들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

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애굽으로 가는 야곱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의 보호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따라 각기 다른 사역을 하더라도 한 방향으로 한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족장들과 자손들이 떠난 가나안을 생각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에서 20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들이 떠난다는 것은 큰 변화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나안은 그곳이 죄로 가득하여 심판을 받을 때까지 죄에게 내어준 버려진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 가치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가 사는 땅과 이웃에게 복의 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그 땅을 버리고 떠날 때면 그 땅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심판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 순례자 컬럼 ✦

이루어야 할 꿈

지혜로운 사람의 관심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있다. 왜냐하면 인생의 나머지를 그곳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만이 오늘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 꿈은 그것을 간직한 이에게 새로움과 활력과 탄력을 주기 때문이다. 그 꿈은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서 이루어진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마침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놀라운 체험을 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미움과 원망과 시비로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마음으로 미래에 초점을 맞추며 산다. 꿈은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사람의 편에서 성취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꿈의 내용이 아니라 왜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일 것이다.

‘병아리’ 집사가 되기까지

정규호 (집사, 3교구)



몇주 전 97년도 서리집사 후보로 추천되어 면접과 교육을 알리는 한 장의 유인물을 받았다. 그저 농담으로 ‘최연소 집사 한번 해볼까’라 웃어 넘겼지만 아직은 집사라는 직분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았다. 집사 후보로 세워주신 교회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아직은 준비와 훈련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아내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정중히 거절하면 되리라는 생각으로 면접에 참석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뜻에 따르라는 말씀대로 강하게 긍정도 부정도 못하고 어설픈 모습으로 면접을 마쳤다. 한 주 뒤 있을 집사교육을 받으면 97년 1년동안 서리집사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조금은 흥분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였고 신앙의 동역자들과 여러 생각을 나누었다.

그동안 교회에서 수많은 감투를 써 보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러저리 뛰어다녔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대학부 리더나 청

년부 회장으로 섬길 때와는 달리 집사라는 직분은 아주 부담스런 느낌을 주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테반을 위시한 일곱 집사를 선택한 것(행6:1-6)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집사 선택이다. ‘집사’(deacon)란 말은 헬라어의 ‘종’이란 뜻인 ‘diakonos’를 번역한것으로 섬기는 자(봉사자)란 뜻이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감독’과 ‘집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3장 8-13절은 집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단 정해야 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해야 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여자들은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 말씀하시며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다.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였다. 이

렇게 한 주를 보낸 후 스스로 아직은 이르다는 결론을 내렸고 교육에 불참하여 임직을 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 한편으로는 아주 작은 나만의 욕심도 있었다. 가끔 집사나 장로 직분을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 예수님이 30년을 준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30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해 왔다. 또 면접 당일 집사 직분을 받기 위해 함께 온 한 부부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그리고 자녀를 둔 후 집사를 받는 것이 더욱 성경적일 것이라며 스스로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기도 했다. 물론 집사 직분을 맡은 후 지금보다 더욱 절제해야 할 것이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조금은 더 세상을 즐기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하여간 우여곡절을 겪으며 드디어 97년도 서리집사로 임명받았다. 하나님과 많은 성도 앞에서 서약도 하였다.

작고 나약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 놓고 이제 맡겨진 일에 정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려 한다.

미래의 목사님들을 바라보며

이강인 (집사, 11교구, 사랑부 교사)

처음 사랑부 교사로 지원할 때 나는 아내의 집요한 권면에 못이겨 ‘딱 3년만’ 한다는 조건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 약속기한을 넘기고 다섯번째 임명을 받게 되는 내 마음 속에는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만이 가득하다.

처음 사랑부 봉사를 시작할 때 나는 단지 아이들을 (육체적으로) 잘 돌보면 된다는 단순한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설교와 분반공부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것을 보며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이 사랑하던 열 두 사도들에 이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예수님의 제자들. 나 역시 교회학교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고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비록 정신지체가 들이지만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도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초등학교 시절에 나를 가르치신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당회장 목사님이 되셨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제 나야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주일마다 내 앞에 앉아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 가운데 누군가 목사님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해본다.



“복수지원제도는 없다”

김광신 (장로, 11교구)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학에 들어가기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대학만 해도 여러 번의 시험기회가 있고 후기대학과 전문대학까지 합하면 싫증이 날 만큼의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어 있다.

대학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독교는 유일의 종교여서 다른 차원의 사고방식이 요구된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의 원칙은 변할 수가 없다.

구원의 길이 복수지원제도처럼 전·후기로 나누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어서 좁은 문이고 험악하고 찾는 이가 적은 것이다. 그럼에도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종교다원주의는 우리를 당혹케 한다. 그것도 신학자의 입과 양심을 통하여 거론될 때에는 참으로 절망스럽기까지 하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귀한 것은 하나씩 밖에 없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한 분이시고 해와 달도 하나씩이고 우리가 사는 지구

도 하나이다. 내 생명도 하나이고 나와 같이 일생을 보내는 배우자도 하나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보내사 저를 믿는 자에게만 영생을 얻게 하셨으며 그 외에 다른 길을 단으셨다. 그리고 사랑의 배신자들을 위하여 또 한 곳을 예비하셨으니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단이 아직도 미결상태이거나 지옥을 동경하고 있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자는 없는 것이다.

유일의 길, 하나밖에 없는 길, 그 길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야 하고 내가 책임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님이 되시고 내 삶은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다.

이성과의 교재를 통하여 배우자를 찾는 젊은이들의 마음 속에 만약 다원주의가 싹터 동시에 여러 사람을 꿈꾼다면 행복한 결혼은 불가능할 것이다.

한 여자가 한 남자만을 사랑하게 될 때 진정한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생의 길을 택하려함에 있어 복수지원을 포기할 때 진정한 구원이 다가오는 것이다.

12월 학습·세례식

1996년도 마지막 학습·세례식이 18일(수) I, II부 예배 시에 거행된다. 이에 앞서 학습자와 세례자를 위한 교육이 16일(월) 문답은 17일(화) 오후 7시에 있다. 문의는 새가족부나 교구담당 목사에게 하면 된다.

순결서약식 신청 마감

교육위원회에서는 1997년도 순결서약식 참가신청을 오늘로 마감한다.

내년 1월 5일 찬양예배시 거행될 순결서약

식은 13세 이상의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서는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교육위원회로 하면 된다.

고등부 송년행사 '아이노스의 밤'

고등부에서는 28일(토) 오후 3시에 '아이노스의 밤'을 연다. 시와 음악 등 청소년들의 정서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행사는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고 새로운 결심으로 새해를 맞으며 주변의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고등부가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이다.

★ 대강절에 - 성탄절의 유래와 풍습 ③

왕을 축하하는 행사들

전나무나 소나무 등에 화려한 장식을 다는 크리스마스트리는 고대 유럽의 풍습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한 겨울 봄을 기대하며 상록수에 장식을 하던 것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새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었다. 나무를 쌓아 믿음·소망·사랑을 뜻하는 삼각 피라미드도 세웠다. 이것이 16세기에 크리스마스트리로 발전했다. 전세계로 퍼져 나간 것은 19세기 중엽이었다. 우리나라엔 20세기 초 선교사들이 전했다.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오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빠질 수 없다. 북극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향은 지중해 터키지방인 것으로 여겨진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성 니콜라스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산타클로스로 되었다고 한다.

성탄축하 말을 적어 주고받는 성탄카드는 1843년 영국의 윌리엄 고안, 호슬레이가 그려 런던에서 판매된 1000장의 카드가 시초이다. 영어권에서 유행한 이 풍습은 이후 각국의 우편제도가 발달하면서 세계적 풍습이 되었다.

즐거움 노래라는 뜻의 캐롤은 14세기 영국에서 율동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등장했다. 15세기에 황금기를 구가한 캐롤은 한때 금지되기도 했지만 꾸준히 이어져 다시 성탄을 축하하는 노래로 우리 주위를 떠나지 않고 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성탄절을 축하하고 즐긴다. 기쁨은 나누면 그만큼 배가된다고 한다. 하지만 지나친 상업주의와 방탕을 우려하는 오래된 지적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이날의 주인은 왕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가장 기쁘고 영광스럽게 해 드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새로 나온 책 <목회자세미나시리즈>

목회자세미나강의 두 권에 답

② 한국교회 진단과 그 처방 * ③ 급변하는 사회와 교회갱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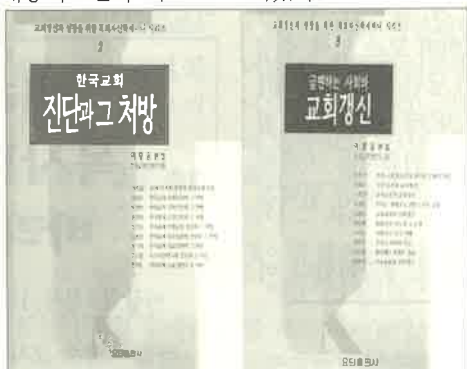
우리 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주최하는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 2, 3학기 강의 내용이 2권의 책으로 엮여져 나왔다.

팔목할만한 성장으로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교회. 그 한국 교회의 성장과 도를 되짚어 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것이 시리즈 중 2권으로 나온 '한국교회 진단과 그 처방'이다.

이 책은 이종윤 목사를 비롯 9명의 저자가 한국교회의 목회·신학·성장 그리고 연합운동, 청소년문제, 설교, 선교 등 교계의 전반적인 문제와 포스트모더니즘을 진단하고 그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종윤 목사는 이 책의 모두에서 21세기의 목회는 개교회주의의 퇴색과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 등으로 진단하고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운동의 확산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시리즈 3권인 '급변하는 사회와 교회 갱신'에서는 교회가 사회 한가운데 있다는 점에 시각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은 10명의 저명한 신학자와 목회자 그리고 지성들을 통해 교회

의 도덕적 책임, 성경공부, 윤리실천, 변하는 세계, 교육목회, 영성, 성경 이해, 치유 등의 문제들을 조망했다.

<목회자세미나 시리즈>는 지난 2월 1권인 '설교와 목회'가 출간된 바 있고, 조만간 4권도 출간될 예정이다.

요단출판사에서 펴냈고 기독교서점과 우리 교회 테이프보급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학교와 교사를 위하여
2. 1997년도에 새로 임명을 받는 각부서 임원들을 위하여
3.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12월이 되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